

##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 웰빙의 질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웰빙 측정 방법의 중요성과 아태지역 국가들의 웰빙 측정 경험 공유 및 확산 도모
- 한국의 '삶의 질 지표'(‘아동·청소년 지표’ 포함)를 아시아 모범사례로 소개
- OECD 사무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ISE센터\*와 공동으로 「GDP를 넘어선 웰빙 측정: 아시아, 동남아시아, 한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9월 19일(화)~20일(수) 양일간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 공식 명칭은 'OECD Centre on 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qual Opportunity'로 OECD 내 웰빙, 포용성, 지속가능성 및 기회 평등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임

\*\* (영문명)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asuring Well-being "Beyond GDP": Asia, South-East Asia, and Korea

이번 회의는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발전측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삶의 수준 측정 방법과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련 경험을 공유·확산하고,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50여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웰빙 측정 방안과 도전과제들이 논의된다.

회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등 국제기구와 한국, 일본, 뉴질랜드,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웰빙 측정 및 정책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며,

개회식에는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알미다 아르샤바나(Armida Alisjahbana)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영상) 등이 환영사와 축사를 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국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측면과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웰빙 측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는 전세계 웰빙 측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웰빙지표 개발, 웰빙 포럼 개최\*\* 등 웰빙 측정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웰빙 측정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OECD 웰빙 프레임워크 구축, 더 나은 지표(BLI : Better Life Index) 작성 등

\*\* 제3차('09년) 및 제6차('18년) 「OECD 통계, 지식, 정책 포럼」 공동 개최

또한, “한국 통계청은 ‘삶의 질 지표’를 2014년 개발하고 이를 매년 공표함으로써, 한국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아동·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웰빙 지표 개발 경험이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통계청이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웰빙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회의는 가브리엘라 라모스(Gabriela Ramos) 유엔교육사회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보의 기조연설(영상)을 포함하여,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비롯, 각국이 추진하는 웰빙 측정 경험과 아시아 국가들 공통의 도전과제, 취약계층 웰빙 측정을 위한 방안, 국제사회의 역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웰빙 측정 경험’을 주제로 마련된 ‘한국 특별 세션’에서는 통계청이 추진 중인 ‘삶의 질 지표’와 더불어 한국인의 행복, 한국 사회의 질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통계청은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아태지역 역내 웰빙 측정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의 웰빙 측정 확대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2-481-2095)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진유강 (042-481-2096)

날짜	시간	세부 프로그램(안)		
9.19. (화)	10:00-10:30	등록		
	10:35-10:55	개회식	[개회사] 이형일 통계청장 [환영사] 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 [축사] Armida Alisjahbana UNESCAP 사무총장(영상)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0:55-11:05	기조연설	Gabriela Ramos UNESCO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영상)	
	11:05-11:15	휴식		
	11:15-12:45 (90분)	<b>세션 1</b>	<b>국제적 시각에서 웰빙 측정에 관한 통찰</b>	
			[좌장/발표] Romina Boarini(OECD WISE센터장) [발표] Rachael Joanne Beaven(UNESCAP 통계국장) Pedro Conceicao(UNDP 인간개발보고서 소장)(영상) Miguel Musngi(ASEAN 사무국 반곤감소 및 젠더국 부국장)(영상) [토론] Kristine Briones(필리핀 통계청장보) Batdavaa Batmunkh(몽골 통계청장)	
	12:45-14:00	오찬		
	14:00-15:30 (90분)	<b>세션 2</b>	<b>한국 특별세션 : 한국의 웰빙 측정 경험</b>	
			[좌장] 김혜련(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 [발표] 최바울(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동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Elena Tosetto(OECD WISE센터 정책분석관) Masayuki Kanai(일본 센슈대 교수)	
	15:30-15:45	휴식		
15:45-17:15 (90분)	<b>세션 3</b>	<b>아시아 웰빙 측정의 공통 영역(common dimensions)</b>		
		[좌장/발표] Takuma Kato(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보건 및 장기요양 정책국장) [발표] Neo Poh Cheem(싱가포르 통계청 경제계정과장) Tshoki Zangmo(옥스포드대 선임연구원) Boonwara Sumano(태국개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Conal Smith(뉴질랜드 거버넌스 및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영상)		
9.20. (수)	09:30-10:45 (75분)	<b>세션4</b>	<b>아시아 웰빙 측정의 도전과제 : 취약집단 웰빙 측정</b>	
			[좌장/발표] 이지혜(OECD WISE센터 선임정책분석관) [발표] Emma Porio(필리핀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 교수)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Phung Duc Tung(베트남 메콩개발연구소장)	
	10:45-11:00	휴식		
	11:00-12:30 (90분)	<b>세션5</b>	<b>웰빙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및 국제사회의 역할</b>	
			[좌장] Romina Boarini(OECD WISE센터장) [발표] 송준혁(통계청 통계개발원장) Clare Dennis Mapa(필리핀 통계청장) Batdavaa Batmunkh(몽골 통계청장) Tadashi Yokoyama(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Diana Cook(뉴질랜드 재무부 수석경제자문관)(영상)	
12:30-12:45	폐회식	[폐회사] Romina Boarini(OECD WISE센터장) 최연옥 통계청 차장		



통계청-OECD WISE센터 공동 국제회의에서 개회사 하는 이형일 통계청장



통계청-OECD WISE센터 공동 국제회의 기념 촬영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이형일 통계청장)